



“재미있어서 어린이법회 나가요” 81.6%

어린이 기초신행생활 설문

44개 사찰 637명 응답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본지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00여 곳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을 대상으로 ‘어린이 마음 부처님마음’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설문에 응한 전국 44개 사찰 어린이법회 회원 637명의 대답을 중심으로 어린이법회 현황과 운영실태, 어린이 불자 신행등을 파악했다.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불자들의 대부분은 절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어린이 법회에 얼마나 참석하나

1주일에 한번 이상, 438명(68.7%)

1달에 2~3번, 170명(26.7%)

1달에 한번, 23명(3.7%)

1년에 1~2번, 6명(0.9%)

좋아하는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법문’ 순
스님·법사와 친하다 69%, 법문 이해 66%
37% ‘집에서 기도 않는다’... 신행연계 부족

불자어린이 10명 8명(81.6%)은 사찰 어린이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15.4, 98명) 지루하다(3%, 19명)는 대답은 많지 않았다.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재미있어서(39.3%, 250명), 부처님이 좋아서(20.4%, 130명),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17.6%, 112명), 친구 만나러(11.4%, 73명), 스님이나 법사님이 좋아서(11.3%, 72명)등의 순이었다.

스님 혹은 지도교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법회에 나가는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님 혹은 지도법사와 ‘친하다’는 응답이 69%(437명)였으며, 별로 친하지 않다 24%(155명) 전혀 친하지 않다 7%(45명)순이었다.

절에 가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었으며(98.1%, 625명), 그런만큼 참석 빈도도 높았다. 68.7%(438명)의 어린이들은 1주일에 한번이상, 26.7%(170명)는 한달에 2~3번, 3.7%(23명)는 1달에 1번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법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56%, 358명), 스님의 법문(9.6%, 61명), 스님과의 대화(7.3%, 46명), 찬불가배우기(6.8%, 43명), 불교구연동화(5.5%, 35명)등을 꼽았다.

또한 어린이의 66.4%(423명)가 스님이나 지도선생님이 해주는 법문을 이해하며, 26.5%(169명)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7.1%(45명)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기초교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부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인 468명이 ‘알고 있다’, 27%인 169명은 ‘모른다’고 답해 교리 공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을 반증했다.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의 63%(404명)는 혼자 집에서 절이나 기도, 참선을 해왔다고 밝혔다. 37%인 233명은 집에서 기도나 참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들의 경우 생활속에서 신행과 연계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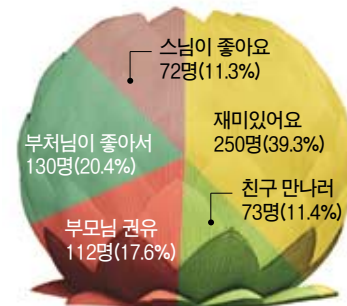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포교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에게 절에 가자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인 450명이 친구에게 절에 함께 가자고 권한 적이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신행태가 돋보였다.

이밖에도 스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39명이 ‘부처님의 일생 등 불교이야기’, 25명은 ‘공부와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 16명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다’, 15명은 ‘법회 잘나오고 불교를 잘 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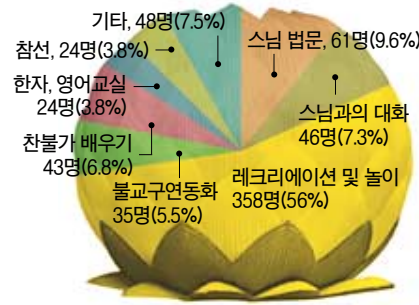
또 사찰에서나 어린이법회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68명이 게임과 놀이프로그램을, 26명이 절하고 참선하며 스님과 대화하는 것을, 15명이 미술 태권도 등 취미를, 10명이 놀이공원 수영장, 소풍 등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이는 어린이불자들이 과도한 학원수업 등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놀이 및 취미, 체험프로그램 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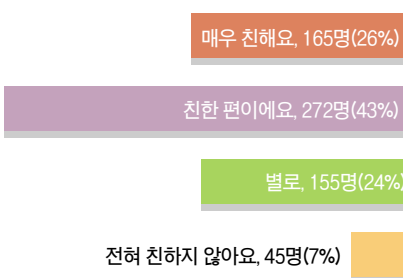
어린이 법회 나오는 이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스님·지도법사와 친한가요



기본 분류 문항

- 성별 ① 남자 281명(44%) ② 여자 356명(56%)
- 나이 ① 7~10세 248명(39%) ② 11~13세 386명(60.5%)
- 지역 ① 서울 120명(19%) ② 경기도 33명 (5%) ③ 충청도 63명(10%) ④ 경상도 345명(54%) ⑤ 전라도 20명(3%) ⑥ 강원도 36명(6%) ⑦ 제주도 20명(3%)

불자 어린이 기초신행생활 설문 내용

- 나는 어린이법회에
 - 1주일에 1번 이상
 - 1달에 2~3번
 - 1달에 1번
 - 1년에 1~2번 참석해요
- 내가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이유는
 - 재미있어요
 - 친구들을 만나러 와요
 -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요
 - 부처님을 좋아해요
 - 스님이나 법사님이 좋아요
- 나는 스님이나 지도 선생님이 해주시는 법문을
 - 들으면 거의 이해해요
 -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 거의 이해하기 힘들어요
- 어린이법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 스님의 법문
 - 스님과의 대화
 -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시간
 - 불교구연동화
 - 찬불가 배우기
 - 한자나 영어교실
 - 참선
 - 기타
- 나는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지
 - 잘 알고 있어요
 -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 거의 몰라요
 - 전혀 몰라요
- 나는 스님(혹은 법사님)과
 - 매우 친해요
 - 친한 편이에요
 - 별로 친하지 않아요
 - 전혀 친하지 않아요
- 나는 내 친구에게 함께 절에 가자고 말한 적이
 - 있어요
 - 없어요
- 나는 집에서 기도/참선 등을 해 본적이
 - 있어요
 - 없어요
- 스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사찰에서나 어린이법회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본지 설문에 응한 어린이 불자들의 대부분은 법회 참석이 재미있고 지도법사와도 친하다고 말한다. 사진은 부산 금화사 조동불교학교의 법회 모습.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For happiness

아이와 함께
다닐 수 있어 더 좋다

짜장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새로운 세상
당신이 건강해서
당신이 건강해서
당신이 건강해서

아들에게 결국
지고 싶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